

우도 신궁: 운다마

우도 신궁에는 운다마라는 ‘행운을 부르는 구슬’을 던져서 운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다마는 점토를 저열에 구워 만든 것이며, 이것을 산등성이 아래 거북바위 위 바닷줄로 표시된 작은 구멍 안으로 던집니다. 남자는 왼손으로, 여자는 오른손으로 던져야 하며 작은 돌이 구멍에 들어가면 던진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운다마 대신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돈을 가져가려고 구멍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전 던지기는 중지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가메이시(‘거북이의 돌’이라는 뜻)라고 불리며 신사에서 모시는 주요 제신인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에 얽힌 신화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 해신의 딸인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는 숙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